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4.23(월) 10시, 이룸센터)

금융위원장 모두 말씀

2018. 4. 23.

금 융 위 원 회

보도를 위한 참고용으로 실제 발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장애인단체 대표님들, 각 협회장님들,
그리고 장애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이 곳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해소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장애인들이 금융을 이용하면서 겪게 되는
불편한점들이 많은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노력해주신 협회장님들과 실무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금융권의 변화가, 장애인의 권익과 관련된
다른 분야에까지 전반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금융개선을 위한 노력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기관 TF회의나 실태조사를 통해
상시적으로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은 장애인 여러분들이 실제 금융이용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과 부당한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들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오늘 협약식을 통해 전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금융상품을 가입하는데 차별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를위해 우선,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품가입이 부당하게 거절되거나 가입비용이 높게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여부에 따른 차별 금지를 관련법규에 명시하고 장애인 편의성을 금융권 소비자 실태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상품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하여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지체장애인이
통장 및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녹취, 화상통화 등 대체 수단을 마련하고

휠체어 장애인이 ATM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ATM의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보험상담을 위해
이달부터 수화상담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시각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지폐 종류를 구분하는 도구를 제작하여 배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금융이용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성년후견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기관과 공유하여
지적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한 금융거래를 방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금융사기 피해사례 교육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법률자문과 심리상담도 지원하겠습니다.

직접 교육을 받으러 가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음성자료로 변환하여
시각 장애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회사 직원들에게도 장애인 대한 상담예절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겠습니다.

사회정의라는 주제를 일생동안 연구한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는
사회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하는 사회가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회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장애인의 권익 개선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혜적인 조치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평창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동계 패럴림픽을 통해
장애·비장애를 넘어 온 국민이 하나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존재하는
금융소외라는 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금융 개선을 위해 도움을 주신
관련단체, 금감원, 금융협회 실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